佛國寺 釋迦塔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陁羅尼經」의 刊年과 刊地에 대한 小考

A Study on the publishing year and place of 「Mukujungkwangtaedaranikyung」 found in Sukkatap, Bulkuksa

양계봉(Yang, Geh-Bong)*

◁ 목 차 ▷

1. 緖 言
2. 則天武后의 新造字
3. 慶州 佛國寺 釋迦塔藏 「無垢淨光大陁羅尼經」에 대한 論難
3.1 刊年의 경우
3.2 刊地의 경우
4. 結 言
<참고문헌>

<초 록>

이 글은 慶州 佛國寺藏 「無垢淨光大陁羅尼經」이 중국 것이라는 중국 학자들의 몇몇 주장 가운데에서 최근 중국의 許興洙 교수가 中國史學會에서 발표한 글에 대하여 그 모순점을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敦煌石室藏 「无垢淨光大陀尼經」題 중 '无'·'陀' 두 자와 釋迦塔藏 「無垢淨光大陁羅尼經」題 중 '無'·'陁' 두 자는 서로 다르다.

둘째, 敦煌本은 여러 개의 사경들이 書體는 물론 行間의 거리도 각기 다르며 紙質도 麻紙인데 비해 釋迦塔藏本은 楮紙이다.

셋째, 敦煌本은 寫本이고, 釋迦塔藏本은 木板本이다.

넷째 불국사 釋迦塔本의 武周新字 地, 證, 初, 授, 4자 때문에 中國本 이라는 주장은 「大方廣佛花嚴經」안에 보이고 있는 武周新字 14자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敦煌石室藏本과 釋迦塔藏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敦煌石室藏本이 梵文을 漢文으로 번역한 原本이고 그것을 木板本으로 印出한 것이 곧 釋迦塔藏本인 듯 주장한 것은 矛盾이다.

요어: 敦煌石室藏 「无垢淨光陀羅尼經」 佛國寺 釋迦塔藏 「無垢淨光大陁羅尼經」

---

* 강남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 (yanggb@kangnam.ac.kr)
접수일: 2004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4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

This is to examine the discrepancy in the recent paper of Professor Heo Heung Soo presented in the History Society of China, which is one of the opinions of some Chinese scholars that Mukujungkwangtaedaranikyung of Bulkuksa temple, Gyung-ju, Korea is originated from China.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ly, among the letters of the title, Mukujungkwangtaedaranikyung of Donwhang and that of Bulkuksa temple, two letters, Mu and Da are different; Mu (无) and Da(陀) in Donwhang's and Mu (無) and Da (陁) in Bulkuksa temple's.

Secondly, the Donwhang copy is consisted of many handwritten manuscripts with many different writing styles and having various different length between the lines of the contents. Furthermore, the copy of Donwhang is made of papers from hemps, and that the Bulkuksa temples is made of papers from mulberry.

Thirdly, The Donwhang copy is a handwritten manuscripts while the Pulkuksa temple copy is a printed one from the wooden blocks.

Fourthly, because of the four letters Ji 地, Jeung 證, Cho 初, Soo 授 of Mujooshincha they insist Bulkuksa temple copy is a Chinese origin. But their opinion is not persuasible because of the 14 letters of Mujooshincha as seen in the Taebangkwangbulwhaumkyung.

Therefore, when seeing with many inconsistencies in various aspects between two copies, the opinion that the Donwhang copy is a orginal one translated into Chinese from Sanskrit and the Bulkuksa temple copy was printed based upon the Donwhang's is obviously incompatible.

key words : Mukujungkwangtaedaranikyung (无垢淨光陀羅尼經) of Donwhang, Mukujungkwangtaedaranikyung of Bulkuksa temple(佛國寺)

1. 緖 言

慶州 佛國寺 釋迦塔藏「無垢淨光大陁羅尼經」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근래에 들어와 점차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학자들은 異口同聲으로 이 經이 중국 敦煌石室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처음 이에 대해 견해를 발표한 사람은 錢存訓 박사이다. 그의 뒤를 이어서 潘吉星 박사가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錢存訓 박사는 "한국의 慶州 佛國寺 釋迦塔藏「無垢淨光大陁羅尼經」에 則天武后의 新字인 '授'·'初'·'地'·'證' 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敦煌石室 藏本「无垢淨光大陀羅尼經」藏本과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2] 錢存訓 박사의 이러한 견해에 찬성한 사람은 潘吉星박사인데 그는 俗字 6자(陀·愿·貌·那·底·恩)를 근거로 錢存訓 박사의 中國本論을 補充하였다.[3]

그런데 최근에 와서 許興洙 교수[4]가 이들 두 중국의 학자와 같은 견해의 논문을 발표했다. 許교수는 최근 中國史硏究會에서 발표한 "關于韓國慶州發現的「無垢淨光大陁羅尼經」的雕印年代和地點的考察'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두 중국 학자의 견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中國本인 敦煌石室 藏「无垢淨光大陀尼經」과 韓國本인 釋迦塔藏「無垢淨光大陁羅尼經」은 몇 가지 점에서 현격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許교수는 敦煌石室藏本이 梵文을 漢文으로 번역한 原本이고 그것을 木板本으로 印出한 것이 곧 釋迦塔藏本인 듯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母本인 寫本과 木板本이 같지 않더라도 寫本이 母本이라면 그것은 板本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된다.

本硏究에서는 釋迦塔藏「無垢淨光大陁羅尼經」刊年과 刊地에 대한 論難이

---

2) 錢存訓,「造紙 及 印刷」(臺灣: 商務印書館, 1990), 194.
3) 潘吉星, 論文, 종 考古發現看印刷術의 起源. 光明日報, 1991년 3월 11일. 5.
4) 前 中國 洛陽外國語大學 大學院 韓國語科 敎授.

尙存하고 있는 만큼 許교수의 논문 내용을 분석하여 그 모순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우선 다음 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則天武后의 新造字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則天武后의 新造字

지난 1973년 中國 河南省 堰師縣 機塼廠에서 唐나라 神龍 元年(705) 刻 「阿媚陀如來坐像 및 觀音·勢至如來菩薩立像龕」이 出土되었다. 그런데 이 「阿媚陀如來坐像 및 觀音·勢至如來菩薩立像龕」의 後面에 石刻된 「般若經」의 내용 가운데에는 '无'자가 여러 字 보이고 있다.[5] 이것이 바로 則天武后(690~705)의 崩後 神龍원년(705) 12월 23일에 건립된 石刻 「般若經」이다. 이것으로 보아 「无垢淨光大陀羅尼經」의 '无'자는 벌써 이때부터 刻石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刻石碑文이 많기로 유명한 '千唐誌齋'에도 武周新字가 天·地·年·月·人·生·世·國·臣·万·正·授·載·初·證·日·聖·星 등 무려 18字가 있고[6], 鄭州博物館 현판에도 '照'[7]字가 있으며 石淙河 碑文에도 '君'[8]字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려 20字[9]의 實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의 기록으로는 法·爲·應·冬 등 4字가 더 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 敦煌石室에 소장되었던 「无垢淨光大陀羅尼經」과 한국 佛國寺 釋迦塔藏 「無垢淨光大陁羅尼經」에도 武周新字가 나타나고 있다. 즉 天授1년(690) 9월 9일에 武周新字로 제정된 '授'[10]字와, 載初元年(690) 10월 6일에 제정된 '初'字와 證聖元年(695) 1월 5

5) 沈暎俊, 「無垢淨光大陁羅尼經傳入與否攷」(서울: 三希出版社, 2002), 78-79. 阿彌陀如來坐像 및 觀音·勢至 菩薩 立像 龕. 河南省 堰師縣 機塼廠 出土 高 43.0폭 29.0. 唐 神龍 元年(705), 河南博物館 臧 碑文 參照
6) 上揭書. 64.
7) 上揭書. 99.
8) 上揭書. 59.
9) 上揭書. 63.

일에 제정된 '地'字와 證聖元年(695) 1월 29일에 制定된 '證'字가 이 兩經에 4字씩 나타나고 있다.[11]

3. 慶州 釋迦塔藏「無垢淨光大陁羅尼經」에 대한 論難

許興洙 교수는 2002년 12월 열린 中國史硏究會에서 "關于韓國慶州發現的「無垢淨光大陁羅尼經」的雕印年代和地點的考察"이란 제목으로 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의 연구결과를 要略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刊年의 경우

彌陀山은 天后末年에 法藏과 함께 「无垢淨光大陀羅尼經」을 飜譯, ① 則天武后字(4字)를 간행한 것을 보고 ② 中宗이 卽位赦文을 宣布하여 改字를 廢止하였으니, 이는 神龍원년(705) 정월 이전이며, ③ 法藏은 彌陀山이 經을 번역하기 전에 이미 實叉難陀가 번역한「離垢淨光陀羅尼經」을 번역하였으며 다시 彌陀山과 같이「无垢淨光陀羅尼經」을 번역하였는데 飜譯動機는 ① 病을 물리치고, 죄를 용서해주는 呪文이 있었고, ② 당시 武后가 699년에 病이 들었고, 또한 殺人도 많이 하여 죄를 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法藏이 이 經의 번역에 관여한 것이 다소 미약하므로 譯者는 彌陀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彌陀山은 신도인 洛陽에 와서 두 가지 일을 하였는데. 하나는 久視 원년(700)에 實叉難陀와 함께「陵迦經」을 共譯하였고, 다른 하나는「无垢淨光大陀羅尼經」을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无垢淨光大陀羅尼經」의 번역과 간행은 701년부터 704년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12]고 할 수 있다.

---

10) 上揭書. 85. '授'자는「花嚴經」에 나타난 武周新字에도 共有.
11) 上揭書. 89. '初'·'地'·'證' 자는「花嚴經」에 나타난 武周新字에도 共有.
12) 許興洙, "關于韓國慶州發現的「無垢淨光大陁羅尼經」的雕印年代和地點的考察" 中國史學會「中國史硏究」(2002. 12), 105.

이러한 사실로 보아 「離垢淨光陀羅尼經」이 먼저 번역되었고, 후에 「无垢淨光陀羅尼經」이 번역되었다는 것은 旣存論과 같다. 그런데 문제는 敦煌石室 藏本과 釋迦塔 藏本의 區分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同一本으로 본 것이 아닌지 하는 점이다.

敦煌本은 寫本이고, 釋迦塔臧本은 木板本이다. 그런데 許교수의 논문을 보면 飜譯時期와 寫·刊時期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中國에서 木板本으로 印出했다는 것이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도 않다. 寫年과 刊年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許교수의 논문에서 논급하고 있는 것은 敦煌本 寫經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혹 刊年이 아니라 寫年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3.2 刊地의 경우

許교수는 또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즉,

① 改字가 中國刊印의 증거이다. '地'자는 4회, '初'·'證'자는 각각 1회, 混用 또는 併用되고 있었다. 則天武后 시기의 改字가 佛經에는 마음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典型的인 證據이다. ② 韓國語는 膠着語이고, 接尾辭를 사용 ... 1443년에 創製 ... 云云[13] 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許교수가 釋迦塔臧 「無垢淨光大陁羅尼經」을 中國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유로 武周新字가 新羅에 전래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武周新字가 포함되어 있는 釋迦塔 臧本은 中國 것으로 자신 있게 논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거가 瞭然한가? 이것이 史實일까? 이에 대하여 許교수는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즉 武周新字는 武周시대의 內政이며 新羅에 전해진 일이 없다는 것이다. 新羅는 고사하고 신도 洛陽 이외에는 중국 내에서도 전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어디에 根據한 것인지 알 수 없다.

13) 上揭論文. 105-107.

그런데 房山本을 보면, 河北省 平山縣의 西北에 武周新字가 들어있는 「佛說菩薩投身飼餓虎起塔因緣經」에 26字[14], 「佛說六門陀羅尼經」에 33字[15], 「佛說彌勒下生成佛經」에 1字[16], 그리고 「佛說金剛般若波羅密經」에 2字[17]와 「妙法蓮華經觀世音普門品」에 13자[18] 등 도합 75字가 있다. 房山石摺本의 경우 그러하다. 이처럼 武周新字는 中國에는 신도 洛陽 이외에도 散在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新羅시대의 遺物로 남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新羅時代부터의 한국의 실정을 鳥瞰해 보면 한국의 주변국 日本이 萬葉假名을 쓸 때, 新羅에서는 固有名詞를 이용했으되, 表記法을 확대하여 吏讀와 口訣을 썼으며, 이는 薛聰에 의하여 整理되었다.[19]

이보다 앞서 高句麗에서는 開國初期에 「留記」[20]를 100권이나 지었고, 그것이 嬰陽王 11년 (600)에는 李文眞에 의해 「新集」[21] 5권이 改修되었으며, 百濟에서는 近肖古王(346~375) 때에 高興에 의하여 「書記」가 편찬되었고, 新羅에서는 眞興王 6년(545)에 居渠夫에 의해 「國史」[22]가 편찬되었다. 이들 史書는 모두 전해지지 않았으나, 그 내용은 金富軾의 「三國史記」[23]에 전해지고 있다.

新羅에서는 늦어도 訥祗痲立干(417~458)이 高句麗를 거쳐 墨胡子에 의해 佛敎가 波及[24]되었으며 754년에는 日本 正倉院 藏本(景雲2: 768년)보다 14년

14) 沈暎俊 前揭書. 5.
15) 上揭書. 補編. 5.
16) 同上.
17) 同上.
18) 同上.
19) 同上.
20) 「三國史記」 高句麗本記 제8 嬰陽王 11年條.
21) 同上.
22) 「三國史記」 新羅本紀 제4 지증왕조.
23) 「三國史記」에 관해서는 (50권 10책, 고려인종 명찬) 고려인종(1123-1145)시에 김부식에 의해서 찬술되었다. 내용·古記·유적 혹은 중국 諸事를 취해서 司馬遷의 史記를 모방해서 편찬. 고려시의 인본은 이미 없어지고 조선태조 癸酉부터 甲戌(1393-1394)에 陳義歸·金居斗가 지었고, 京府 大師 사신에 개간, 중종(1512) 때 李繼福에 의해서 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443년은 誤謬임.

이나 앞선 寫經이 필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大方廣佛花嚴經」 80권으로 그 중 1권부터 10권, 同書 44권부터 50권, 도합 2軸이 우리나라에 傳來되었는데 이 「大方廣佛花嚴經」은 현재 湖巖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다. 이 華嚴經에 나타난 武周新字를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花嚴經」에 나타난 武周新字 (14種)

武周新字	前卷(卷1-10)字數	後卷(44-50卷分)字數	備　考
君	1	0	
人	9	29	
日	12	49	
天	161	37	
地	54	2	釋迦塔本旣述分詳述
正	22	17	
年	1	5	
月	32	22	
國	126	53	
生	1	0	
照	1	0	
證	5	4	釋迦塔藏旣述分詳述
初	1	0	釋迦塔藏旣述分詳述
授	0	5	釋迦塔藏旣述分詳述

이 「大方廣佛花嚴經」은 三星文化財團의 藏本으로서 원래는 慶北 월성군 건천읍의 徐聖洙의 소유였다. 이 白紙墨書 「大方廣佛花嚴經」의 寫經時期는 天寶 13年 (754) 8月 1日에 시작, 그 翌年 2月 14日에 筆寫한 것으로 筆寫期間은 6개월이다. 이 華嚴經은 중국 華嚴經의 60卷本 40 卷本 80卷本 「花嚴經」 중 80卷本에 해당된다. 일본의 正倉院 藏本보다 14년이나 앞선 이 白紙墨書 「大方廣佛花嚴經」은 國寶 197호로 지정되어 있다. 跋文을 보면, 이 寫經은 皇龍寺의 緣技法師가 發願했고 寫經시기는 754년이며 이 안에는 證聖3년에 制定된 武周新字 '授'자와 證聖元年 正月에 제정된 '地'자와 天授1년(690) 9월 9일에

24) 「三國史記」 新羅本記 제4 法興王조.

제정된 '授'자와 載初元年(690)10월 6일에 제정된 '初'자와 證聖元年(695)1월 5일에 제정된 '地'자와 證聖元年(695) 1월 29일에 제정된 '證' 자를 비롯한 君・人・日・天・正・年・月・國・生・照 10字가 더 있다. 모두 합쳐 14字가 武周新字이다.

다음으로 寫經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寫經關與者의 內譯

擔當業務	居住地	人名	官位
紙作人	仇叱兮縣	黃珍知	奈麻
經筆師	武珍伊州	阿干	奈麻
		異純	大舍
		今毛	大舍
		義七	韓舍
		孝赤	沙彌
	南原京	文莫	沙彌
		卽曉	韓舍
	高沙夫里郡	陽純	奈麻
		仁年	韓舍
		屎烏	韓舍
		仁節	韓舍
經心匠	大京	能吉	奈麻
		兮古	奈麻
佛菩薩像筆師	同京	義本	韓奈麻
		丁得	奈麻
		光得	舍知
		豆烏	舍(知)
經題筆師	同京	同智	韓舍

이 經에 나타나 있는 寫經關與者의 내역을 보면 卷末에는 擔當業務를 맡은 자로 紙作人・居住地・人名・官位까지 明示되어 있다. 紙作人으로는 居住地가 仇叱兮縣, 人名은 黃珍知, 官位는 奈麻이며. 經筆寫로는 南原京人, 文莫(沙彌)과 卽曉(韓金) 등이고, 經心匠으로는 大京人, 能吉(奈麻)이 있고, 佛菩薩像筆師로는 同京人인 義本(韓奈麻) 등이 있고, 經頭筆師로는 同京人인 同智(韓舍)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經이 2軸 뿐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나타난 寫經關與者로 미루어 보아도 이와 같이 선명한 新羅 시대의 「花嚴經」을 中國本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敦煌石室藏 「无垢淨光大陀羅尼經」과 佛國寺 釋迦塔藏 「無垢淨光大陁羅尼經」를 對比해 보면 題目을 비롯하여 形態書誌學的 입장에서 보아도 10여 곳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서지학적 차이점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이상으로 許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지적했던 "武周新字本은 特殊書로서 洛陽 이외에는 禁書였다"는 論旨에 대하여 本硏究에서는 "武周新字는 房山은 물론 新羅에까지 傳來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許교수가 지적한 "韓國語는 膠着語이고, 接尾辭를 사용 ... 1443년에 創製 云云" 한 부분에 관하여는 下代에 속하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存疑는 省略하기로 한다.

4. 結 言

이상의 서술을 종합하여 보면 許교수가 武周新字의 所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중국의 방방곡곡을 답사하여 조사한 것은 학문연구상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지만 敦煌石室藏 「无垢淨光大陀羅尼經」 寫經과 佛國寺 釋迦塔藏 「無垢淨光大陁羅尼經」 木板本을 同一視하고 結付시키려는 의도는 板本學上의 對比에 있어 문제가 없지 않다.

形態書誌學的 입장에서 보면, 확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마치 敦煌石室藏本 「无垢淨光大陀羅尼經」을 飜譯한 후에 中國에서 이어 木板本으로 印出, 이를 釋迦塔에 所藏한 것이 곧 「無垢淨光陁羅尼經」인 것처럼 同一視 하는 인상을 주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히려 이 부문의 연구에 混沌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兩經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原文書誌學的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敦煌石室 藏 「无垢淨光大陀尼

經」題 중 '无'·'陀' 두 字와 한국의 釋迦塔藏 「無垢淨光大陁羅尼經」 題 중 '無'·'陁' 두 字를 비교하면 서로 다르다.

둘째, 內容 記事와 紙質을 보더라도 中國本과 韓國本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敦煌本의 寫經들이 書體는 물론 行間의 거리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紙質도 麻紙인데 비해 釋迦塔藏本은 楮紙이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敦煌本가운데 '修' 字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밥식변(食)에 머리수로 된 '首' 字를 합쳐서 한 글자로 된 것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板本의 경우에도 敦煌石室藏本과 釋迦塔藏이 서로 다르다. 즉 敦煌石室藏 「无垢淨光大陀羅尼經」은 寫本인데 반해, 釋迦塔藏 「無垢淨光大陁羅尼經」은 木板本이다.

넷째, 불국사 석가탑본의 武周新字 地, 證, 初, 授, 4자 때문에 중국본이라는 주장은 「大方廣佛花嚴經」안에 보이고 있는 武周新字 14자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則天武后字本이 신도 洛陽에만 정치적으로 쓰여진 資料인 것처럼 여겨 중국 내부의 房山에는 없는 듯 단정하고 더욱이 당시 新羅에는 유통을 禁忌시킨 것으로 神聖視하여 해석한 것은 文獻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異見을 전개하면서도 '末年'을 '期年'으로 보아야 하고, 본래 俗字였던 '國'자가 則天武后 新字로 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한 걸음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文化財廳,「新羅白紙墨書大方光佛華嚴經」. 대전: 文化財廳, 2001.
沈喁俊,「无垢淨光大陀羅尼經 傳入與否考」. 서울: 三希出版社, 2002.
沈喁俊,"「无垢淨光大陀羅尼經 傳入與否考」補篇."「書誌學硏究」제25집(2003, 6). 5-16.
佛國寺 釋迦塔藏「無垢淨光大陁羅尼經」
金聖洙,"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事項 考證에 의한 世界 印刷圖書의 起源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學術硏究 發表會 제300회 記念 國際學術 심포지엄 發表 論文, 1999.
許興洙,"關于韓國慶州發現的「無垢淨光大陀羅尼經」的雕印年代和地點的考察." 中國史學會「中國史硏究」第21輯 (2002. 12).
潘吉星,"考古發現看印刷術의 起源."「光明日報」. 1991年 3月 11日.
錢存訓,「造紙 及 印刷」. 臺灣: 商務印書館. 1990.